

한우산업의 전망과 정책방향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장

외환위기 이후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한우사육두수가 너무 적어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유럽제국에서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이 이어지면서 유럽에서는 축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축산업과 한우산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WTO 쇠고기 패널에서의 패소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한우산업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여건의 변동에 따라 앞으로 한우산업을 전망하고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분석결과를 곁들여 적어 보고자 한다.

1. 한우산업 구조

한우농가는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로 구분된다. 번식농가의 주 사육규모는 30두 이하이고 비육농가는 30두 이상이 많다. 번식농가로 분류한 20~30두 규모의 농가는 상대적 소득의 크기에 따라 번식과 비육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계층으로 볼 수 있다.

10두 미만의 번식농가는 주로 노령인력을 중심으로 한 부업경영으로, 사육의 목적이 소득확보보다는 소득의 보완에 있으며, 이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밭에 퇴비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송아지 생산비면에서도 다른 규모에 비해 낮고, 다소의 가격변동에는 사

육규모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에 의해 비교적 번식과 비육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왔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전에는 30두미만 규모의 번식농가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사육두수면에서 보면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번식부문의 위축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계층은 10~30두 규모의 번식농가이고, 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10두미만 규모의 사육두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30두 이상의 사육규모로 대표되는 비육농가는 호수나 두수면에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처럼, 번식부문과 비육부문간의 불균형이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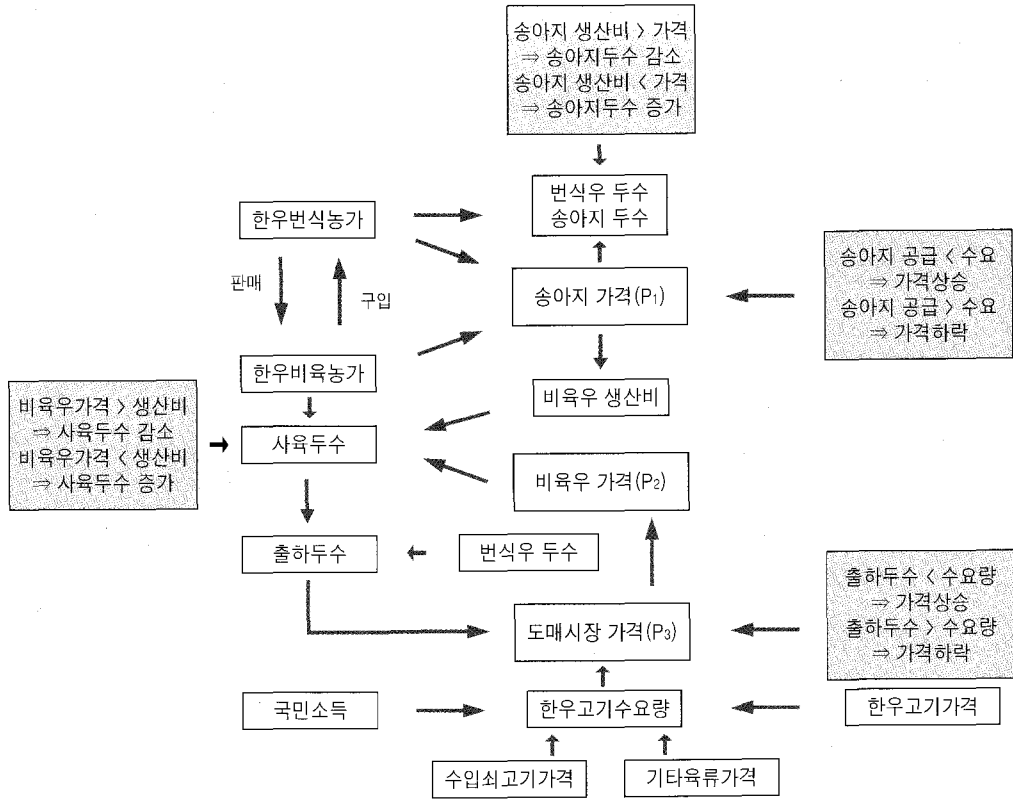
[표 1] 한우사육 농가의 구성

주된 사육 규모	번식농가		비육농가	비고
	10두 미만	10~30두	30두 이상	
성 격	번식 부업규모 노령인력 중심	번식 비육 일관 청장년 중심	비육 전업 청장년 중심	
사육목적	소득보완, 퇴비공급	소득 증대	소득 증대	
송아지 경영비	가장 낮음 712~755천원	높음 880천원	- 982천원	평균 857천원/두
가격변동에 대한반응	다소의 변동에는 반응 약함	특히 20~30두 규모는 비육조건이 좋으면 비육으로 전업	사육규모 조정 -지속적 확대 경향	

[표 2] 생산농가 및 두수변화

주된 사육 규모	번식농가		비육농가	전체
	10두 미만	10~30두	30두 이상	
사육호수 (천호)	1990	597 (96.2)	20.5 (3.3)	620 (100)
	1997	397 (85.4)	55 (11.8)	465 (100)
	2001.6	229 (88.1)	22 (8.5)	260 (100)
사육두수 (천두)	1990	1,169 (72.1)	292 (18.0)	1,622 (100)
	1997	1,193 (43.6)	850 (31.1)	2,735 (100)
	2001.6	569 (37.7)	351 (23.3)	1,507 (100)

[그림 1] 한우시장구조와 가격결정 흐름도



기고, 일정두수의 번식우를 공급해 오던 부업농가의 감소율이 높아, 소규모 번식농가에 대한 육성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10~30두 미만의 번식농가가 비육농가로 전환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번식과 비육간의 균형소득 확보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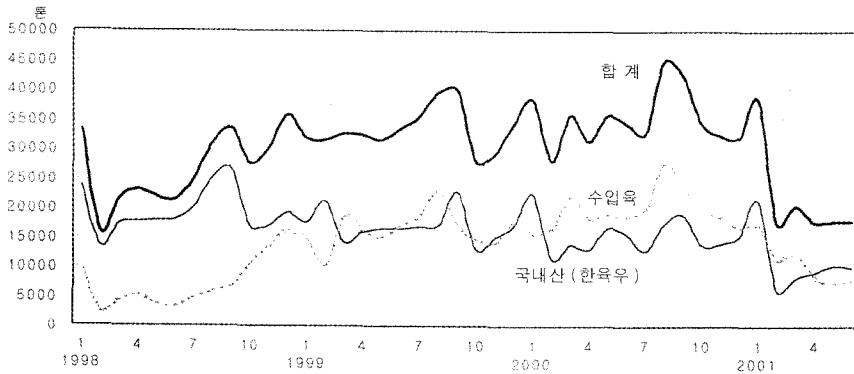
현재와 같이 송아지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번식기반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송아지 공급이 축소된 반면, 큰 소 가격 또한 높게 유지됨으로써 비육을 위해 필요한 송아지의 수요도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개방화시대이고, 이미 생우와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송아지가격과 소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한, 한우산업은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되고, 언제까지나 이들 가격을 높게 유지될 수는 없는 구조인 것이다.

2. 한우 시장구조와 가격결정 메카니즘

번식기반이 크게 위축되자, 정책의 초점은 사육두수 증대에 맞추어졌다. 번식농가가 사육규모를 늘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송아지생산비보다

[그림 2] 쇠고기 수급추이



송아지가격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아지생산비는 사료가격과, 번식우의 산차, 송아지 폐사율 등에 의해 결정되며, 송아지가격은 비육농가의 송아지 수요와 번식농가 공급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비육농가가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육우 생산비보다 비육우 가격이 높아야 한다. 비육우 생산비는 송아지구입비, 사료가격 등에 의해 결정되고, 비육우 가격은 산지의 큰소 수요와 농가의 출하두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도매시장의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우부문은 양돈이나 육계와는 달리 사육기간이 매우 길다. 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번식의 경우 실제로 송아지가 생산되기까지는 10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이 필요하며, 비육의 경우에는 대략 2년 정도의 사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년전의 송아지가격에 육성 및 비육에 소용된 비용보다 큰소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칫 적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볼 수 있게 된다.

3. 한육우 수급동향

쇠고기 소비량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량은 환율상승, 경기후퇴, 광우병 파동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도 사육두수가 줄어들고, 번식의 향이 증가됨에 따라 소를 출하하는 물량이 매우 적어졌다. 이를 수치화하여 보면, 올 3~5월까지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고, 수입 쇠고기 공급량은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으로 52%나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6%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광우병 파동에 의한 한우고기 수요감소율은 2월 54%에서 6월에는 35%로 19%포인트 하락하여 광우병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쇠고기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에 의한 수요 감소율은 2월 47%에서 5월 74%까지 커진 후, 6월에 69%로 약간 축소되었지만, 아직까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쇠고기 소비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에는 쇠고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

[표 3] 전년동월대비 수급실적 비교 분석

월	한우고기 소비감소율	요인별 기여도			수입쇠고기 소비감소율	요인별 기여도		
		소득변화	가격변화	심리요인		소득변화	가격변화	심리요인
2	-46.2	6.3	1.8	-54.2	-30.8	7.7	8.1	-46.6
3	-40.7	6.3	-0.8	-46.1	-43.9	7.7	10.6	-62.2
5	-37.7	6.3	-3.7	-40.3	-60.7	7.7	5.2	-73.6
6	-36.1	6.3	-7.5	-34.8	-57.9	7.7	3.7	-69.3

[표 4] 향후 쇠고기 소비에 관한 소비자조사 결과

항 목	4월조사	7월조사	비 고
소비를 감소시킴	43%	2%	위축된 소비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을 전망
소비를 현수준으로	16%	69%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의향이 큼
한우소비증가	14%	27%	앞으로 한우소비가 점차 늘어날 전망
수입육 소비증가	0%	2%	수입쇠고기 소비는 당분간 저조할 전망

[표 5] 수입육 구분판매제 폐지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항 목	작년12월조사	7월 조사	비 고
한우확인후 한우구입	69%	65%	한우를 구입하려는 소비의향은 예전과 큰 변화없음
차라리 수입육 구입	19%	11%	광우병 파동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수입육 구입의향 감소
품질에 따라 구입	12%	24%	맛, 안전, 품질,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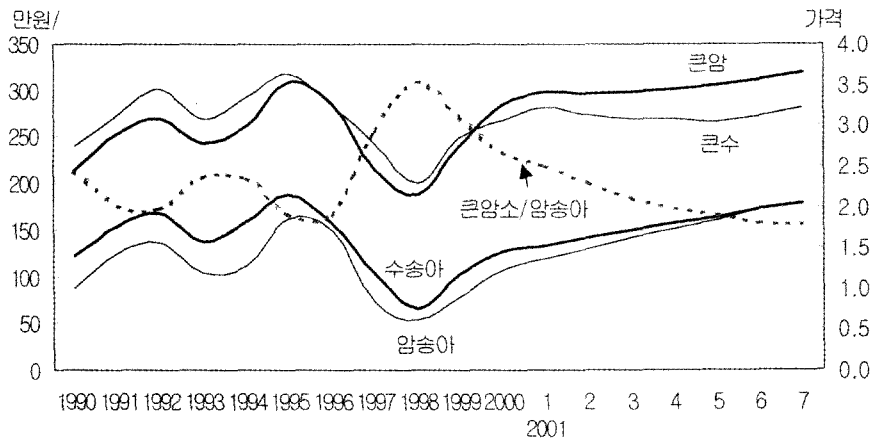
답이 45% 였으나 7월에는 2%로 감소하여 쇠고기 전체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4월에는 14.6%에 불과하였으나, 7월 조사에서는 27%로 증가하였고, 수입쇠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겠다는 의향은 2%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우고기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수입쇠고기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수입쇠고기 소비는 연말 내지 내년도 초에 가거나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9월 중순부터는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한 점포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쇠고기의 부정유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부정 유통이 만연되면, 소비자들은 속을 위험이 없는 수입 쇠고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국내산 쇠고기 수요기반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로 인해 수요기반이 위축되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조사 결과에 의하면, 쇠고기구분판매제가 폐지될 경우 11~19%가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구별할 수 없어 차라리 수입육을 구입하거나 가격 및 신선도만을 고려하여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우와 수입육을 구분하지 않고 가격과 품질에 따

[그림 3] 큰소 및 송아지 산지가격 변동



라서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들도 7개월 전보다 12%나 증가하여 24%나 차지하였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 2001년 1~6월 평균 큰소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수소는 3.5%, 암소는 9.2% 상승하였다. 7월 들어서는 큰소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17.3~19.2%, 송아지가격은 43.1~62.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송아지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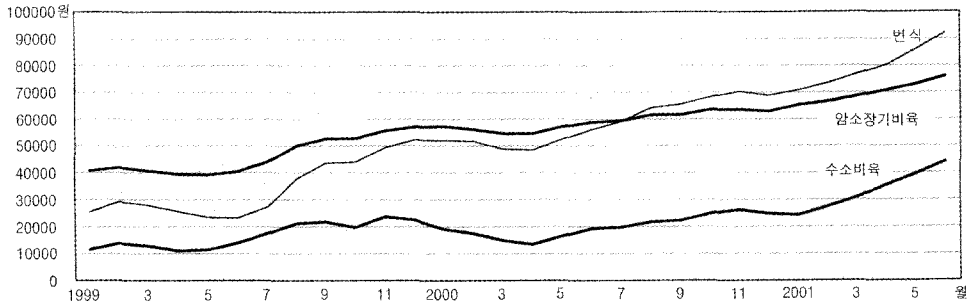
4. 소 사육형태별 소득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10~30두 미만 농가를 주 정책대상으로 한 번식과 비육간의 균형소득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육우 사육형태는 단순하지 않다. 특히 비육의 경우에는 암소장기비육과 암소단기비육에 이은 만삭암소비육, 수소 일반비육, 거세비육 등 다양하다. 암소단기와 만삭비육의 경우, 과거 수입자유화

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할 때 가격의 급속한 하락과 함께 크게 성행하였다. 그러나, 높은 가격수준에서는 번식에 의한 리스크를 직접 번식농가가 직접 부담하려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암소장기비육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육우 사육형태를 번식, 암소비육, 수소일반비육, 거세비육의 4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각 사육유형은 사육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1마리의 한우가 1개월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지표로 하여 비교하였다.

비교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최근 산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모든 유형에서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0년 7월 이후에는 번식소득이 비육소득을 넘어서 번식의욕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의 가격수준인 송아지가격 180만원, 큰소가격 300만원에서, 두달 월간소득은 번식의 경우 9.2만원으로 암소장기비육의 7.6만원보다 높다. 한편, 비육 소득도 증가하고 있어 송아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그림 4] 사육형태별 두당 월간소득의 변화, 1999.1~2001.7



[표 6] 거세비육의 수익성 비교 분석

두당 월간 소득	수소비육	거세비육	암소장기비육 (1산기준)
큰소 평균가격 300만원대	4.4만원	7.0만원 (7.8만원)	7.6만원
큰소 평균가격 250만원대	5.2만원	7.4만원 (8.2만원)	6.0만원

것으로 예상된다. 번식소득과 비육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수준은 송아지 120만원, 큰소 250만원 수준으로, 현재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거세의 경우 현재가격 수준인 큰소 300만원에서 일반비육에 비해서는 두당 월간 2.6만원 정도 높지만, 암소장기비육에 비해서는 낮다. 번식과 비육의 균형소득 수준인 250만원의 경우 일반비육에 비해 두당 월간 2.2만원 정도 높으며, 암소장기비육에 비해서도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소 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고급육 생산의 유리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큰소 산지가격 250만원 수준일 경우 송아지 가격이 일반육은 120만원인데 비해 거세의 경우 170만원 수준에서 동등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5. 한육우산업의 증장기 전망

한육우 사육두수는 1996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1년 3월에는 147만 6천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6월 가축통계에 의하면, 한육우 사육두수가 3월에 비해 다소 늘어나, 앞으로 사육두수가 더 늘어날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최저점을 통과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농가의 암소번식의향은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송아지생산두수가 증가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송아지 이외의 사육두수도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암소 번식의향은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사육형태별 소득비교에서 본 바와 같이 번식소득이 높아 번식의향이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월간 인공수정률 자료를 보아도, 2000년 하반기부터 번식의향은 회복되고 있으며, 2001

[표 7] 한육우 최근 사육동향

단위 : 천두

	2001년 3월	2001년 6월	증 감	기여율(%)
큰 암소	728	740	12	38.7
큰 수소	208	223	15	48.3
송아지	540	544	4	12.9
총 사육두수	147.6	150.7	31	100.0

[표 8] 쇠고기 수급 증장기 전망

	총두수(천두)	생산(천톤)	수입(천톤)	총소비(천톤)	자급율(%)	1인당 소비(kg)
2000	1,587	211	225	396	52.8	8.4
2001	1,453	151	169	362	42.3	7.6
2002	1,566	120	204	364	33.0	7.6
2003	1,832	124	261	386	32.3	8.0
2004	2,018	151	277	428	35.4	8.8
2005	2,140	175	297	474	37.2	9.6

* 주)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제의 효과를 반영한 것임.

년 상반기에 회복되는 경향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번식의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송아지 생산두수가 언제부터 증가하는지는 누적인공수정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12개월 누적인공수정실적으로 볼 때, 2002년 2월 이후에 가서야 송아지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사육두수가 증가하려면 도축두수보다 송아지 생산두수가 많아야 한다. 2001년 하반기에는 송아지 생산두수는 적고, 추석과 설 등의 영향으로 도축두수는 많을 시기여서, 사육두수는 연말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상반기에는 송아지생산두수가 증가하고 도축두수는 감소하는 시기이다. 이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한우사육의 최저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한우산업의 증장기 전망을 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사육두수는 내년 중반기에 저점을 지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200만두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총소비량은 2000년 39만 6천톤에서 2005년 47만 4천톤으로 증가하고 자급률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산지가격은 생산량감소로 2003년까지 상승하고, 2004년부터는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6. 수급안정 정책 평가와 방향

이번에는 한우산업의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생산부문의 주요정책은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장려금 정책이 있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거세장려금제로 대표된다. 그리고, 축산물중합처리장 활성화대책은 유통정책을 대표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수준은 경영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생산비 수준에 가까이 있는 수준

[표 9] 수소도축두수중 거세우비중과 등급간 가격비율 추이

	수소도축두수중 거세우비중	거세우 1등급비율	1등급비율	1등급 / 2등급 가격비율	1등급 / 3등급 가격비율
1994	1.1	52.2	12.7	105.8	118.7
1996	2.3	65.4	18.8	109.1	128.4
1999	10.5	52.6	18.9	109.1	121.8
2000	9.5	52.3	24.8	110.6	130.1
2001.6	19.0	54.8	30.8	108.3	125.0

이며, 현재 송아지가격이 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이 폭락하는 비상시를 대비한 대책이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가의 의미가 없다.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다산장려금 수혜두수는 14만7,841두로, 금액으로는 24억 6,810만원이 된다. 1세이상 암소두수를 74만두로 볼 때, 약 20% 수준의 암소가 다산장려금제도의 수혜를 받은 셈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다산장려금 정책에 의한 송아지 판매소득 상승분은 두당 30,400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를 정책의 목적인 암소도축 감소분으로 환산하면, 10,306두로 2000년 2세이상 암소두수 381,732두의 2.7%에 해당한다.

최근 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암소도축제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임암소 보유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암소가격 하락에 의한 번식의욕 저하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번식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송아지 입식자금지원정책의 경우는, 앞으로 암소도축률, 안공수정률, 번식비육소득비율 등 관계지표의 변화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번식소득이 높아 번식의욕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도축두수 중 거세우 비중은 1994년 1.1%에서 2001년 6월 19.0%로 증가하고, 1등급 출현율은 1994년 12.7%에서 2001년 6월 30.8%로 증가하여 고급육 생산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거세우의 1등급 출현율이 하락추세여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으나, 사육기술향상으로 최근 상승세로 반전되어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1등급과 3등급의 가격비율이 1994년 118.6%에서 2001년 6월 124.9%로 상승하였지만, 1등급과 2등급간 가격비율의 변화는 미미하여, 중간등급에 대한 고급육의 가격차이 즉, 고급육 생산의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월 현재 운영중인 LPC는 농협김제육 가공공장과 한냉중부공장외에 안성축산LPC와 박달재한우LPC 2개소가 있다. 그 중 안성축산LPC는 도축장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제천의 박달재한우마을 LPC뿐이다. 그러나, 운영중에 있는 LPC도 원료구입비 증가, 운영자금 부족,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으로 가동률이 낮아,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유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지원된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이 시설자금으로 소진 되어 운영자금의 지원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원료구입과 상품판매의 시차에 따른 운영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LPC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우산업의 정책 방향

한우부분은 축종의 특성상 시차가 길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자칫 두수가 가격동향에 따른 수급조절정책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수급불안을 증폭시킬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인공수정률, 암소도축률, 번식·비육소득 비율 등 예고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을 적기에 시행, 적기에 중단하도록 하는 예보체계 수립이 요망된다.

무엇보다도 사육두수를 늘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번식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다산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외에 인공수정 지원, 수정란이식 등 신기술보급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가축개량지원 등에도 정책적인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아지 생산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우개량생산단지를 정예화하고,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한 번식우 관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고급육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되어야 한다. 고급육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브랜드 육성 및 한우고기 전문판매점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가락동 축산물 공판장을 고급육 전문시장으로 육성하여 고급육 생산에 대

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세확대와 거세후 사양기술 보급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거세우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사양기술을 보급하여 1등급 출현율을 꾸준히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분리를 위한 상벌제도의 강화를 제시한다. 부정육 유통에 대한 감시를 정부가 직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감시단체에 부정육 감시업무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하여야 한다.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부정육 유통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신고의식을 높이며, 부정유통 의심육에 대한 검사의뢰가 오면, 검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고발체계 및 수사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완한다면, 제도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여기에 유전자 감식법 등 육질 구분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적인 뒷받침을 한다면, 유통을 투명화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LPC 활성화의 방법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LPC에 지원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하향 조정이다. 둘째, 부실 LPC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하여 인수자금을 지원 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농협중앙회 및 대형유통업체 등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인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인수자금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운영주체에 임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나 일본의 식육센터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